

보도시점 2024. 5. 23.(목) 12:00 배포 2024. 5. 23.(목) 10:00

'24년 1분기 가계소득 +1.4%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, 소득분배 개선

- 고용 호조, 공적연금 수급액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 지속
- 사업·이전소득 증가가 총소득 증가 견인

'24.1/4분기 가계소득은 견조한 고용증가세 지속 및 공적연금 수급액 상승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+1.4%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다. 5분위를 제외한 전분위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며, 사업(+8.9%)·이전소득(+5.8%)이 크게 증가하며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. 실질소득은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△1.6% 감소하였다.

- 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4.7 (2/4)△0.8 (3/4)3.4 (4/4)3.9 ('24.1/4)1.4
- 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1분위)6.6 (2)1.8 (3)3.8 (4)0.7 (5)△4.0
-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29.1<△1.1%> (사업)87.5<+8.9%> (이전)81.8<+5.8%>
-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0.1 (2/4)△3.9 (3/4)0.2 (4/4)0.5 ('24.1/4)△1.6

1분위는 사업소득 감소에도 근로·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 중에서 총소득이 +7.6%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. 5분위는 사업·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업 상여금 지급 축소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감소하였다.

- * 분위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1.4 (1분위)7.6 (2)4.2 (3)5.4 (4)2.7 (5)△2.0

소비지출은 오락·문화, 식료품, 음식·숙박 등 중심으로 증가(+3.0%)하였으며, 이에 따라 흑자액이 감소(△2.6%)하였다.

- *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,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5.98배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(△0.47배p)하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이다.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.

- 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1.1/4)6.30 ('22.1/4)6.20 ('23.1/4)6.45 ('24.1/4)5.98

정부는 소득·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, 경기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지희 (joyee@korea.kr)

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.2만원, 전년동기대비 +1.4% 증가

○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△1.6% 감소

□ (소득항목별) 사업·이전소득 증가, 근로소득 감소

* 항목별 소득(만원): (사업)87.5<+8.9%> (이전)81.8<+5.8%> (근로)329.1<△1.1%>

○ (사업소득) 임대소득 증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*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

* 농축수산물 CPI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1.5 (2/4)0.5 (3/4)2.6 (4/4)7.7 ('24.1/4)10.4

○ (이전소득) 국민·기초연금 등 연금 수급액 상승(+3.6%), 부모급여 인상('23년 35~70만원 → '24년 50~100만원) 등으로 증가

○ (근로소득) 취업자 증가, 임금 상승 등에도 주요 기업의 상여금 지급 축소의 영향으로 감소

*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3.1/4)39.7 (2/4)34.6 (3/4)26.3 (4/4)30.3 ('24.1/4)29.4

** 전체 임금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2.0 (2/4)2.9 (3/4)2.7 (4/4)2.5 ('24.1~2월)0.5

300+ 임금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1.2 (2/4)3.2 (3/4)2.9 (4/4)3.1 ('24.1~2월)△5.7

분위별 소득

□ 5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, 1분위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

* 분위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1.4 (1분위)7.6 (2)4.2 (3)5.4 (4)2.7 (5)△2.0

○ (1분위) 사업소득(△3.6%)은 감소하였으나, 취업자 증가,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근로소득(+6.6%)·이전소득(+9.4%)이 증가하며 총소득 증가(+7.6%)

○ (5분위) 사업(+2.3%)·이전소득(+19.9%)은 증가했으나 근로소득(△4.0%)이 감소하여 총소득 감소

- 근로소득은 고소득 근로자 상여금 축소*로 감소하였으며, 국민연금 수급액 상승** 등으로 공적이전소득(+21.5%) 큰 폭 증가

* 상용특별급여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△4.5 (2/4)△2.4 (3/4)△0.6 (4/4)△3.4 ('24.1~2월)△12.5

**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고액수급자(만명): ('23.1/4)1.6 (2/4)1.6 (3/4)1.7 (4/4)1.8 ('24.1)3.2

지출 · 가계수지

- (처분가능소득) 이자비용(+11.2%) 증가 등으로 비소비지출이 증가(+1.2%) 하였으나 총소득 증가로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(+1.4%)

※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(조세, 연금지출, 사회보험료 등)

*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%): (전체)1.4 (1분위)11.2 (2)4.1 (3)4.9 (4)2.8 (5)△2.3

- (소비지출)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.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+3.0% 증가(실질은 보합)

○ 국내·외여행 증가, 과일·채소 등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오락·문화, 식료품 등에서 증가

* 지출 증감률(전년비, %): (오락·문화)9.7 (식료품)7.2

- (가계수지) 흑자액은 113.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△2.6% 감소하였고, 평균소비성향은 71.9%로 전년동기대비 +1.2%p 증가

*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, 평균소비성향 = (소비지출 / 처분가능소득)×100

○ 적자가구 비율은 26.8%로 전년동기대비 +0.1%p 증가

* 적자가구 비율 =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의 비율(처분가능소득-소비지출<0)

소득분배

-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5.98배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(△0.47배p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1.1/4)6.30 ('22.1/4)6.20 ('23.1/4)6.45 ('24.1/4)5.98

□ [평가] 총소득 3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, 소득분배 개선

- '24.1분기 총소득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*했으나 3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
5분위 소득 감소는 주요기업의 상여금 지급 축소 등 근로소득 감소 영향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4.7 (2/4)△0.8 (3/4)3.4 (4/4)3.9 ('24.1/4)1.4

** 분위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1.4 (1분위)7.6 (2)4.2 (3)5.4 (4)2.7 (5)△2.0

- 소비지출은 국내·외여행 증가, 과일·채소 등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오락·문화, 식료품 등에서 증가

* 지출 증감률(전년비, %): (오락·문화)9.7 (식료품)7.2

- 소득 5분위배율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(△0.47배p)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모습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: ('21.1/4)6.30 ('22.1/4)6.20 ('23.1/4)6.45 ('24.1/4)5.98

※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□ [대응방향] 소득·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 노력 지속,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

- 일자리, 교육, 자산형성 지원 중심의 「사회 이동성 개선방안」('24.5월)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,

- 「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」(5월), 「역동경제 로드맵」(6월)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

- 경기회복세*가 민간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·투자·수출 등 경제 활력 제고 노력 강화

* 제조·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 생산지수 및 수출 증가세·건조한 고용흐름 지속

- 아울러,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및 지표상 경기회복세 체감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